

2023년 아산장학생 502명 선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가운데)과 이사, 대학총장 등이 아산장학생들과 함께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월 23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원생 69명, 대학생 433명 총 502명에게 장학금 35억 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은 국내 41명, 해외 22명 등 총 63명으로 졸업 시까지 매년 2,000~4,000만 원을, 보건의료 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6명에게는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대학교 장학생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7명을 비롯해,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는 '다솜장학생' 5명,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5명, '성적우수장학생' 11명이 포함됐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65명도 선발했다.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고, 나래장학생과 다솜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학업보조비로 연 24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아산재단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학생 여러분도 중·귀·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을 간직하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해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85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글 편집부